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상징성 연구
The Study of Kitsch Aesthetic Symbol Represented
in Modern Hair Style

박길순 · 이수인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Park, Kil Soon · Lee, Su I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Univ.

Abstract

Fashion, a means of communication, is the symbol conveying the social information and the individual identity. The opulence of material and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make the sign of fashion variable and individual;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hair style among the today's sign of fashion, as a determinant element in judging each person's look is emphasized. Kitsch, based on the variety and the individuality is the manner of art in diverse hobbies. In addition, it enlarges the sphere of modern art, creates new open aesthetic world.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symbol of Kitsch aesthetic represented in hair style, which is meaningful.

The method of this study is quality analysis by means of semiology, aesthetics, Fashion artical, magazine, etc. To support this statement, we will study the form, a primary symbol, and the ideology, a secondly one in 『Mythologies』 of Roland Barthes(1972). Then by means of the form and the ideology, we will try to recognize the myth, an essential symbo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like these three points.

First, the Kitsch patterns of representation in hair style use the accumulation by an excessive ornamentation; the inappropriateness by the lack of form, the disagreement, the unbalance, and the nonfunctional form; and finally, the amusement by the reconstruction, the exotic, and the satire. The above three is true to the Barthes's primary symbol-the form.

Second, the anti-traditionality(including the lack of form, the disagreement, and the unbalance), the homesickness(including the reconstruction and the exotic), and the eclecticism(including the parody and the mixed imitation) are created as the ideology of the liberal artistic notion, different from the past outlooks on aesthetic. This is true to the Barthes's secondly symbol-the ideology.

Third, the form and the ideology enable us to express our own thoughts and to recover the humanity, which is the primary purpose of Kitsch aesthetic.

The Kitsch hair style, as we witness, does lead the varied and liberal aesthetic world, create its accessible value, and place the art of hair style in a higher status.

주제어 : 헤어스타일, 키치미, 상징성, 롤랑바르트의 신화론

Corresponding author : Park, kil Soon

Tel. 042)821-6826, Fax. 042)822-8283

E-mail : kspark@cnu.ac.kr / suin-dm@hanmail.net

I. 서론

복식은 의상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에서 신발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장식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토탈패션화 현상이 대두되면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복식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사회적 정보와 개인적 정체성을 전달한다. 즉 사회는 구조를 필요로 하고 구조는 상징을 필요로 한다. 이때 가장 명백한 상징체는 인간의 신체이다¹⁾.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의 복식은 모든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며 언어에서의 말과 같이 기호로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보이려는 기호로 이해해야 한다.

새로움과 혁신의 시대인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발달은 복식기호를 다양화, 개성화시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상징성도 매우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원주의적이고 절충주의적 문화현상으로 다양한 취미를 대표하는 키치현상은 예술적인 나쁜 취미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간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예술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과 더불어 진정한 자유인으로 인간을 승화시키는 도구로서 이해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긍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기존의 절대 순수한 미의 기준에 의한 획일적 양식보다는 개인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개성 표현을 중시하는 키치현상이 사회전반에 팽배되고 있다²⁾.

특히 복식 중 헤어스타일은 얼굴을 강조하고 우리의 인상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복식과 더불어 별도의 영역으로 발달되면서

독특한 상징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중을 중심으로 빠르고 넓게 그 영향력을 확장하여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예술이자 사회문화적 기능의 한 형태로 헤어스타일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의 미적 상징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72)의 『신화(Mythologies)』를 중심으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Kitch)미의 1차적 기호와 2차적 기호를 분석하고 신화로서 가지는 키치적 상징성과 그 의의를 살펴봄으로서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또다른 의미로서 키치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사회학, 미학, 기호학 및 헤어스타일에 관련된 패션 이론서 및 연구논문 등을 참고로 하였고 1995년부터 2000년 최근까지의 컬렉션에 등장한 캣워크(cat walk)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들어 논증하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롤랑 바르트의 「신화 : Mythologies」

인간은 상징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여기서 상징력이란 "외계의 사물과 사건들에 자유롭게 또한 인위적으로 의미를 창작하고 결정하고 부여하는 능력이며 또한 그러한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³⁾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인간은 기호라는 체계를 이용한다.

소쉬르(Saussure)는 기호이론(semiology)으로 추상적인 언어체계로서의 랑그(langue)측면과 개

1) Penny storm, *Funtions of Dress Tool of Culture and the Individual*, New Jersey : Prentice-Hall, 1987, p. 112.

2) 오창섭, "키치현상을 통해 본 제품의 사회·문화적 기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진숙, "키치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인숙,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3) 레스리 A. 화이트, 문화의 개념, 이문웅(역), 서울 : 일지사, 1993, p. 10.

개인의 발화 행위(speech)로의 빠롤(parole)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논의하였다. 이때 랑그는 한 언어의 문법에 해당되는 기본구조이며 빠롤은 그것을 토대로 실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운용되는 담화 또는 해당되는 실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기호는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청각적 영상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실체로 이루어진 기호(sign)라고 불리며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다. 말의 외면적 형식 즉 소리면을 기표(signifier)라하고 그 내용면을 기의(signified)라고 한다.⁴⁾

피어스(Peirce)는 소쉬르의 언어학적 범주에서 비언어학적 기호까지 포함한 기호론을 정의한다. 그는 소쉬르가 정의한 음운론을 중심으로하는 언어학과는 달리 다양한 대상, 즉 비언어적 체계들을 다루고 있다. 그는 기호체계를 기호, 대상, 해석자의 상호작용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를 3분 법칙으로 도상, 지표, 상징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현대기호론의 관심사인 의사소통과 표현의 체계를 제시하는데 기여하였고 롤랑 바르트, 자크 라캉등에 영향을 준다.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는 그의 『신화: Mythologies』에서 플라스틱, 가루비누, 스트립 쇼, 장난감, 스테이크와 감자튀김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⁵⁾ 소쉬르의 정의 이후 초기 기호학은 언어현상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었으나 피어스를 거쳐 롤랑 바르트는 여러 다양한 문화현상을 연구하는데 사용하였다. 특히 바르트는 대중문화와 그 실천행위들 이면의 숨어있는 이데올로기를 밝히고자 하였다. 신화란 기호학적 체계로서 기표와 기의의 결합체인 기호가 하나의 이차적 체계의 기표로 기능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의가 첨가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키는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신화는 이러

〈표 1〉 롤랑 바르트의 신화구조 모델

기표	기의
기표(기호)	기의
신화(의미작용)	

한 이차적 의미작용을 만드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롤랑 바르트의 신화구조모델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는 키치를 일종의 코노테이션(connotation)적 체계⁶⁾라고 말한다. 키치는 하나의 신화구조를 형성하며 키치를 소비하는 것은 곧 신화를 소비하는 것이 된다. 신화는 소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데 이는 신화화 과정을 통해 그 의도가 자연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의 눈에는 신화화 과정의 기표와 기의의 연결이 자연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의 키치적미의 연구에 있어서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적 접근은 단순한 형식 뿐만아니라 내용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

2. 키치

1) 키치의 어원과 정의

키치는 현대언어에서 예술적인 나쁜 취미를 지칭하는 수많은 용어들 중에서 진정하게 국제적 지위를 획득한 유일한 용어이다.⁷⁾ 이러한 키치는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 독일 뮌헨의 미술서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어원적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루드비히 기츠(Ludwig Giesz)는 스케치(Sketch)라는 영어에서 키치라는 독일어가 나왔다는 말과 독일어의

4)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p. 20

5) 오창섭, "앞의 논문", p. 16.

6) 포틀라치(Potlatch)란 아메리카 인디언의 일부 종족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주장이 다른 부락 추장을 초대하는 기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소비형태를 말한다.

7) 김정숙, "앞의 논문", p. 6.

동사 키첸(kitschen)이라는 '거리의 허접 쓰레기를 긁어 모으다', '새로운 세간을 구석으로 배치하다'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M. 칼리니스쿠는 키치라는 용어는 미완성이고 값싸고 쓰레기나 폐물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아브라함 몰르는 독일 남부에서 '긁어 모으다. 아무렇게나 주워 모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말이며 보다 넓게는 '낡은 가구를 주워보아 새로운 가구를 만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그 어원적 유래를 밝혔다.⁸⁾ 즉 키치란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하는 모조품과 이 모조품에서 자기 기만적인 만족감과 위로를 구하려는 심리상태인 것으로 키치는 행복의 처방전인 것이다.

결국 키치는 창조적으로 문화를 생산하는 대신에 배끼기와 모조품을 이용하여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문화적 표현이자 징후이다. 그러나 키치는 그저 싸구려 모조품이나 속물근성만으로 볼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키치는 문화적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파행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상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키치는 미적, 윤리적으로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낮춰 보는 태도는 대중문화 전반의 구조와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키치가 싹트고 꽃핀 문화는 다름 아닌 우리 대중문화의 틀 안에서 엮기 때문이다.

키치는 더러운 주변에서 보게 되는 야릇하게 튀는 취미나 스타일의 일종만은 아니다. 하나의 스타일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특정 집단의 취미이기에는 매우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명 키치는 아직 대중에게 낯설다. 그러나 그 대상과 현상들은 공기만큼이나 친숙하여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키치는 명백하기보다는 모호한 어원을 가지며 또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대중문화구조와 흐름에 전체적으로 커다란 영향

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현상들은 우리들을 감싸안고 있다.

2) 키치의 발생 배경과 변천

키치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등장하였으며 키치가 발생하게 된 원천은 크게 낭만주의와 산업화로 보고 있다.

낭만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이후 신학문과 인문주의, 문예부흥, 민족의식의 성장으로 개인주의와 감정적 신비주의가 배타되어 낭만주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18세기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낭만주의 혁명은 이전시대의 절대적인 미에서 벗어나 취미규준을 완전히 상대화시켰고 낭만주의자들에게 의해 감상취향의 예술개념이 증진되어 다양한 종류의 심미적인 현실도피를 향한 길을 열었다.

또한 낭만주의는 평균적인 독자들이 가지는 문화적 욕구에 대해 자족적이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미와 실제생활의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 열정을 자극하는 새로운 속성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오락과 여흥으로서의 예술, 접근의 용이성, 빠르고 예측가능한 효과들, 작가의 상업정신,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대중의 욕구는 키치가 번성하게 된 문화적 토대가 되었다.

또한 사회적 원천인 산업혁명은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성립을 이끌면서 특유의 소비형태이자 문화현상을 야기하였다. 계급이동과 신분상승이 가능한 구성원들은 대량생산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상태를 문화적으로 선취,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신분상승의 환상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실천방법 중 하나인 키치가 나타난 것이다.

키치의 발달의 근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낭만주의와 산업화에 따른 대중문화의 창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중들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1960년대 이후 재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기반을 중심으

8) 움베르트 에코, 스누피에게도 철학은 있다, 조형준(역), 서울:새물결, 1994, p. 87, 재인용.

M.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이영옥 외(역), 서울 : 시각과 언어, 1994, p. 292

아브라함 몰르,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역), 서울 : 시각과 언어, 1995, p. 9.

로 대중의 미적 경험은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대중문화를 끌어내었다. 대중문화는 종전의 고급문화와 하급문화라는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발전시키는데 이를 바탕으로 키치는 번성하게 된다.

키치는 모든 예술과 시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급부상한 부흥기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 친숙해진 전성기를 찾을 수 있다. 부흥기는 부르조아 시민 계급의 승리를 쟁취한 시기이며 전성기는 사물들로 범람하는 풍요로운 사회가 도달한 오늘날이다. 키치는 부르조아 계급이 예술의 영역으로 눈길을 돌림으로서 부흥기를 맞이하여 그들의 생활양식이 예술의 영역까지 진출해 승리의 쾌감을 맛본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중사회로 변모해가는 시기로 재산의 유무, 타인에 대한 자신의 지위 상승의 과시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모되었다. 또한 강력한 공업력으로 자본은 가속도로 순환함으로써 특권계급에 의한 착취가 야기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귀족들이 사용한 사물 및 예술을 그들의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체인 기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키치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개성 강조와 감정의 우위를 중시하는 낭만주의시대로 미적 이상의 개념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대량생산과 물질 풍요로 인하여 또 한번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즉 키치는 낭만주의, 산업화를 기반으로하여 부흥기를 맞이하여 오늘날에는 대중사회의 문화 현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3) 키치의 구성요소

전문화된 문화는 세분화된 전문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강력한 문화형태를 형성하지만 키치는 세분화된 전문 영역을 보다 세분화시킴으로서 세분화된 것들의 단순한 융합체와 별로 다르지 않게 만든다. 즉 키치는 그 자체로는 하나의 독립된 경향이지만 다양한 예술유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영향속에서 신중하게 취사선택해 수용

된 것이 아니라 무선별적으로 받아들여져 무의적으로 물들은 것이다.

키치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엔겔하르트(Engelhardt) 또는 킬리(Killy)등이 잠정적으로 서술해왔다. 이를 정리하여 아브라함 몰르는 키치현상을 다섯가지의 원리로 설명한다.⁹⁾

첫째, 부적합성의 원리로서 엔겔하르트는 병따개 등과 같은 공업제품에서 부적합성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그는 키치에는 본래의 기능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 사물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며 예술적 영역의 키치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리얼리즘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일종의 일탈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키치는 항상 표적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과녁을 겨눈다. 그리고 크기의 불균형, 차원의 위화감과 같은 것도 보여진다.

둘째, 축적의 원리이다. '좀더 많이'라는 충동, 수집열이 오늘날 부르조아 문화를 대변하는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도처에 사물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축적의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충동이 순식간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빈공간을 가득 채운다. 바비에르 공작의 침대에 장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침대 커튼 기둥을 보면, 금으로 화려하게 도금된 소용돌이 장식이 바로 축적의 원리를 상징하고 있다. 종교성에 영웅주의가 덧붙여지고 에로티시즘에 이국적 정서가 중첩된 축적이 우리의 눈요기감을 넘쳐흐르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우리 감각의 정면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제시한 지각체계가 우리를 익사시킬 정도이다.

셋째, 공감각의 원리이다. 이것은 축적의 원리와 공유하는 부분으로 동시에 가능한 많은 감각기관을 향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감각영역이 중추신경으로 통합된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때 맥락과 균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자명종 시계, 금박이 싸여진 포도주병, 향수냄새가 나

9) 아브라함 몰르, 앞의 책, pp. 83-90.

는 물건 등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중용의 원리이다. 키치의 비극은 중용의 원리에서 발견된다. 다양한 사물과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키치의 특징은 소위 키치라는 현상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앞서서 보여주는 전초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키치는 본질적으로 전위에 대항하는 대중예술로서의 준비단계를 거친다. 다시 말해 대중에 의해 수용되어 나름대로 하나의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용이 되는 순간 사이비와 같은 의미가 되며 소비자는 그 때부터 자신과 키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키치를 경멸하는 미소로 바라보게 된다.

키치라 불려지는 다양한 사물들은 중용의 원리를 통해 키치라는 개념속으로 흡수된다. 중용의 원리는 다양한 영역의 키치를 하나로 묶어 모조리 사악한 사물로 평가해 버린다. 이 중용은 모든 영역에 발견되는 중간적인 위치이며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것들과 구성된 집합인 키치를 판통하는 원리인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키치는 중용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행과 관계될 때 중용의 원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중용성을 완전히 거부함은 키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과 같다.

다섯째, 쾌적함의 원리이다. 이러한 키치의 원리들 가운데 '편안하게 살자'라는 사고방식이 있다. 그것은 소비재를 꼼꼼이 생각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놀이에 가깝게 마구잡이식으로 선택하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크게 노력할 필요도 없이 편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표준적인 생활의 영위만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Ⅲ.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상징성

롤랑 바르트의 신화 이론은 형과 이데올로기가 합쳐져 기호를 이루는 상징체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헤어스타일의 키치적 미의 상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형과 이데올로기인 1차

적 기호와 2차적 기호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나타난 상징적인 신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1차적 기호는 컬렉션 사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2차적 기호는 키치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고 신화는 1차적 기호와 2차적 기호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키치적 미의 상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구성요소(롤랑 바르트 신화의 1차적 기호)

구체적 형태에서 키치적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사물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요소가 키치를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산물로서 구체화되는 키치는 나름대로의 형식을 통해 키치적 특성을 가진다. 산물로서의 키치를 만드는 구성원리를 아브라함 몰르는 엔겔하르트(Engelhardt)와 킬리(Killy)의 도움을 받아 5가지 즉 부적합성의 원리, 축적의 원리, 공감각의 원리, 중용의 원리, 쾌적함의 원리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의 키치적 구성원리에 적용가능한 3가지 원리 즉, 축적, 부적합, 쾌락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그 의미를 통해 롤랑바르트 신화의 1차적 기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축적

키치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사물들의 수집열로 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집열은 과도한 장식과 과잉적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집중현상을 유도한다.

'장식,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들 중에 어떤 것도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눈여겨 보는 것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특정한 사회적 지위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그 평균적인 사람들은 막대한 양의 무익한 장식들을 그들이 속해 있거나 속하기를 열망하는 훌륭한 삶의 조건으로부터 어떻게든 분리될 수 없는 것들로 간주한다'¹⁰⁾고 하였으며 '가치가 하락되면 무



〈그림 1〉 Betsey Johnson
gab-D, S/S, 1999, p. 291
컬러 피스와 꽃장식을 덧붙인 과도한 장식



〈그림 2〉 MIKI MIALLY
gab-D, S/S, 1999, p. 193
머리를 부풀리고 꽃으로 덧붙인 과도한 장식

엇 한가지만으로는 존재가치가 유지될 수 없게 되고 여러 요소들을 짜 합쳐야 겨우 뭔가가 성립하는 것이 아닐까? 본질 그 자체의 가치가 희박해지고 있으므로 여분의 것, 장식적인 것을 부가함으로써 겨우 뭔가가 성립된다. 마구잡이식으로 키치가 가치하락의 시대에 출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며 이러한 구조가 키치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있는 것, 다른데서 가져온 것, 확대한 것, 여분의 것을 끌어 모은 일종의 패치워크와 같은 것이 키치가 아닐까?¹¹⁾라고 설명하였다.

헤어스타일에서의 축적의 원리는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컬러피스를 이용하여 머리를 덧장식하고 꽃으로 다시 그 위를 장식하여 과잉적 장식을 통한 스타일로 키치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에서 보듯이 머리를 세워 부풀리고 그 곳에 꽃장식을 통해 과잉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과도한 장식은 키치의 축적에 따른 표현 구성요소로 보여진다.

2) 부적합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형태, 크기, 형식적 내용 등이 부적절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키치적 사물들은 특히 그 재료에 있어서 부적절성을 나타내는데 언제나 목표로부터 약간 빗나간 곳을 겨냥한다. 또한 키치의 부적절성은 미적 대상의 결합이나 배열과 관련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형태, 크기, 형식적 내용등이 부적절하게 표현되는 형태를 말한다.

헤어스타일에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절도있는 형태가 아닌 옆으로 모아있는 물형식의 스타일이라든가 과장된 채 윗부분을 끌어올려 그 구성을 부적절하게 표현(그림 4)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커트 라인을 불규칙하게 커트하고 두상에 밀착되게 표현하여 헤어스타일의 본래 기능에서 멀어진 형태(그림 5)로 나타난다. 이러한 물형식, 부조화, 불균형, 비기능 형식은 키치의 부적합에 따른 표현구성요소로 보여진다.

3) 쾌락

키치에 대한 일반화된 견해 중 하나는 키치를 '근대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쾌락의 문제'

10) 김경옥,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연구", 1998, p. 15, 재인용.

11) 김경옥, "앞의 책", p. 23, 재인용.



〈그림 3〉 KENZO
gab-D, S/S, 1999, p. 291
옆으로 모아있으나 형식이
정확하지 않은 스타일



〈그림 4〉 Milk/Milk Boy/O.D.O.B
Collections, S/S, 1995, p. 171.
낮선 부조화를 이룬 스타일



〈그림 5〉 Shinichiro Arakawa
Collections, S/S, 1998, p. 194.
불규칙적 커트라인으로 인한
비기능적 스타일

로 보는 입장이다. 생활속에서 아무 즐거움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세계로부터 이탈하여 자신을 자극하는 단순한 즐거움으로 이동하려는 욕구를 느낀다.¹²⁾ 이러한 정서는 낭만주의에 영향으로 엄격한 규칙이나 질서에 구속되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을 구사하며 다양성을 인정하여 개성을 중시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만나

를 동경하고 과거를 찬미하는 등 현실과 유리된 이상화의 동경으로 나타난다. 또한 20세기 후반은 소비사회, 대중매체사회, 후기산업사회 등으로 불리는 복잡다단한 시대로 종교의 세속화, 물질만능으로 인한 인간 소외와 단절,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와 상대주의적 빈곤,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그림 6〉 Javier Larrainzar
BOOK MODA, A/W, 96/97, p. 32
1960년대의 헤어스타일과 헤어밴드



〈그림 7〉 Alexandra de Gastine
gab-D, S/S, 99, p. 202
동양적인 비녀장식



〈그림 8〉 Milk/O.D.O.B.
gab-D, S/S, 99, p. 305.
CD를 이용한 머리장식

12) 김경옥, "앞의 논문", p. 21-22.

세속성과 인간소외라는 세계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수단으로 키치의 상징성을 이용하였다.

쾌락적 구성요소를 지닌 헤어스타일은 (그림 6)에서 보듯이 95년 컬렉션에서 60년대 유행했던 부풀린 헤어스타일과 헤어밴드의 재등장으로 현실 도피와 더불어 과거를 찬미하는 복고현상을 나타내며 (그림 7)에서 보여지는 동양적인 머리장식인 비녀는 이국취향적 키치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림 8)에서는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소의 풍자를 CD를 이용한 머리장식을 통해 현대의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 이와같이 키치의 쾌락에 따른 표현 구성 요소는 복고, 이국취향, 풍자 등으로 보여지고 있다.

2.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이데올로기 (롤랑 바르트 신화의 2차적 기호)

키치는 전통적으로 예술의 대립물로서 '가상에 술', '예술적 무가치' 등과 같은 저속한 취향과 미적 부적절성을 내포한 사이비 예술로 인식되어 왔다. 즉 예술이 진리이고 초월적이고 창조적이라면 키치는 허위적이며 타율적이고 상투적인 것으로서 예술과 키치는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으면서 예술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반면 키치는 종속적이며 부정적 가치를 담보하는 미적 산물이라는 것이 일반화된 통념이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에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세계관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전통적 예술과 미적 체계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모색속에서 반예술, 반미학으로서의 키치가 예술의 영역에서 새롭게 해석되었다. 따라서 키치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기츠는 (L. Giesz)는 체험의 관점에서 예술과 키치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체험으로 어떤 대상과의 만남속에서 승고한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지만 예

술체험은 대상으로부터의 거리와 냉점함을 갖게 하는 반면 키치체험은 대상에 빨려들게 하는 동시에 자기로부터 모종의 거리를 통한 쾌와 자기향수적 감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키치의 종속적이고 부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미학적인 입장에서 키치현상에 대한 체험을 '추'나 '끌게'와 같은 미적 범주의 하나로 보았다.¹³⁾

이러한 확장된 미의 세계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키치는 헤어스타일에서도 다양하고 개성적인 표현에 광범위한 미적 가치를 부여시켜 주었다. 따라서 본연구는 키치의 2차적 기호가 기존의 미의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 주변의 미를 도입시킨 상징으로 보았다. 키치에서 나타난 반미학적인 미의 가치를 크게 반전통성과 향수성, 절충성으로 나누어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반전통성

20세기 전반은 절대적 미, 획일적 미를 거부하고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개별적 미를 추구한다. 따라서 소수 엘리트의 대변인이 아닌 대중자신에 의한 것으로 과거와 같이 수준높고 잘 정제되지 않았으나 매우 민주적이면서 개방적인 미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절대적이지도 초월적이지도 않은 반전통적 미를 성립하였다.

따라서 부적절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헤어스타일이 등장하고 주목받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미를 내포하여 협의의 미로서 미적 범주의 일종일 뿐 아니라 조화와 질서, 비례의 범칙으로 '이성적 미'를 언급함과 동시에 20세기의 이성에 대응하는 미가 아닌 시공을 초월하는 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미의 열린 세계를 창출하였다.

저속한 취미구조의 반엘리트적인 미로서 몰형식, 부조화, 불균형의 형태인 골게미로서 부적절함이나 쾌락, 축적으로 인해 키치적 구성요소와 더불어 목적에서 어긋나는 스타일인 반전통적 미의 세계를 이끌었다. 이러한 미는 열린 미의 세계

13) 김정숙. "앞의 논문". pp. 13-14.

로 미의 세계를 확장시켰다.

2) 향수성

낭만주의는 지성, 이성에 대한 반감으로 그리고 일상적 지식의 감각적인 역사막 뒤에 무엇이 가 활력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시도로부터 현실을 도피해 나가는데 이러한 도피의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역사'라는 전원이다. 즉 과거의 회귀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¹⁴⁾ 이러한 과거회귀의 키치적 특성은 복고주의나 이국취향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서 낭만성이라고 하는 국적 불명과 시간초월의 이국적, 초시간적 키치가 범람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3) 절충성

절충성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대표적인 요소는 패러디, 혼성모방이라고 볼 수 있다.

혼성모방은 패러디와 혼동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패러디와 혼성모방 양자 모두 모방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스타일의 매너리즘과 스타일상의 특색을 흉내내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나 패러디는 본질에 대한 은밀한 공감함을 가져야 되며 이면에는 원본으로서의 모더니스트들의 스타일이 조롱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엄청난 파편화와 개별화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사회 전반적인 생활의 더욱 심층적이고 일반적인 경향을 예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런 개별적이고 특이한 스타일은 조롱할 수 있는 규범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단지 스타일상의 다양함과 이질성만 남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패러디가 불가능하게 되고 혼성모방이 등장하게 된다.¹⁵⁾

절충주의 스타일의 범람에 따라 최초의 스타일, 즉 오리지날을 찾기 힘들며 미적 비판행위는 단지 표피만을 흉내낸 혼성모방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획일성을 거부하는 다원주의적 성향으로 키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짐으로서 헤어스타일의 키치적 미의 가치 중 절충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헤어의 장식물의 절충성은 의미를 지닌 모방으로 사회를 풍자하거나 독특한 의미를 상실한채 지나치고 조잡한 형태로 컬렉션에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 스타일이 가지는 규범이 사라지고 풍자나 단지 스타일상의 다양함과 이질성만이 남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출처의 분명함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캣워크에서 보여지는 헤어스타일은 여러 흐름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다.

3.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상징성

(롤랑 바르트 신화)

키치는 소수엘리트 계급을 위한 고급예술과는 다른 대중에 의한 새로운 미적 체계를 바탕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가치를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키치는 시공을 초월한 미의 가치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의 절대적 미의 영역을 확대시킨 열린 개념의 미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표현과 더불어 단절되고 소외된 인간성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억압되었던 미의식은 다원화된 방식으로 기존의 미의식을 해체하고 확대함으로서 권위주의적 획일성을 극복하여 그에 대신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뚜렷한 자기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타일로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1차적 기호의 의미인 축적, 부적합, 패락과 2차적 기호의 의미인 반전통성, 향수성, 절충성이 합쳐져 이룬 신화는 근본적인 헤어스타일의 키치적 미을 인간의 진정한 자유표현 즉 인간성회복을 상징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것을 바탕으로 롤랑 바르트

14) 김경옥, "앞의 논문", p.19.

15)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 42.

<표 2>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을 중심으로 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상징성

1차적 기호	
(그림1), (그림2)	축적 (과잉적 장식)
(그림3), (그림4), (그림5)	부적합 (물형식, 부조화, 불균형, 비기능)
(그림6), (그림7), (그림8)	패라 (복고, 이국취향, 풍자)
2차적 기호	
반전통성(물형식, 부조화, 불균형), 향수성(복고, 이국취향), 절충성(패러디, 혼성모방)	
신화	
인간의 진정한 자유표현 인간성 회복	

의 신화론을 중심으로 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상징성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IV. 결 론

복식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사회적 정보와 개인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기호체계이다.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발달은 복식기호를 다양화, 개성화시켰으며 특히 오늘날 복식 기호 중 헤어스타일은 우리의 인상결정에 결정적인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화, 개성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키치는 다양한 취미를 대표하는 예술양식으로 현대예술영역을 확대시켜 열린 미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상징성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롤랑 바르트의 『신화』를 중심으로 1차적 기호의 <형(形)>과 2차적 기호인 이데올로기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1차적 기호와 2차적 기호를 중심으로 궁극적 상징성인 신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표현양식은 과도한 장식을 통한 축적 그리고 물형식, 부조화, 불균형, 비기능적 형식을 통한 부적절성, 마지막으로 복고, 이국취향, 풍자를 통한 패락을 이용하였다. 이는 바르트의 1차적 기호에 해당된다.

둘째,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이데올로기는 물형식, 부조화, 불균형으로 나타난 반전통성, 복고와 이국취향으로 나타난 향수성, 그리고 패러디와 혼성모방으로 나타난 절충성 등 과거의 미의식과는 다른 열린미의식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였다. 이는 바르트의 2차적 기호에 해당된다.

셋째,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미의 상징성은 1차적 기호와 2차적 기호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자유표현 및 인간성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키치미의 궁극적인 표현 목표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바르트의 신화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키치적 현상으로 표현된 현대 헤어스타일은 다양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또다른 의미

로서 개방적인 미의 세계를 주도하고 열린 미적 가치를 창출하여 헤어스타일의 예술적 위치를 부상시켰다.

주제어 : 헤어스타일, 키치미, 상징성,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

참 고 문 헌

- 김경옥,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이인가, 민음사, 1996.
- 김인숙,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정숙, "키치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레스리 A. 화이트, 문화의 개념, 이문웅(역), 서울: 일지사, 1993.
- 아브라함 몰르,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역), 서울:시각과 언어, 1995.
- 오창섭, "키치현상을 통해 본 제품의 사회·문화적 기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움베르트 에코, 스누피에게도 철학은 있다, 조형준(역), 서울:새물결, 1994.
-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M. 칼리누스쿠, 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이영옥 외(역), 서울:시각과 언어, 1994.
- Penny storm, *Funtions of Dress Tool of Culture and the Individual*, New Jersey:Prentice-Hall, (1987).
- BOOK MODA, A/W, 96/97.
- Collections, S/S, 1995.
- Collections, S/S, 1998.
- gab-D, S/S, 1999.